

도연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

송 용 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도연명은 ‘술의 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시에는 도처에 술이 언급되어 있고, 현실 생활에서도 술을 즐겨 마셨다. 그의 시 126수를 살펴보면 직접 술이 언급되어 있는 시가 51편에 달하고,¹⁾ 시의 본문 속에 술과 관련된 시어로 ‘주(酒)’가 31번, ‘상(觴)’이 14번, ‘료(醪)’가 4번, ‘배(杯)’가 5번, ‘음(飲)’이 8번, ‘취(醉)’가 7번, ‘휘(揮)’가 6번 등장하

* 이 논문은 2010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 지원을 받았음.

1) 이 통계는 그의 4언시를 9수로 친 것이다. 그러나 그의 4언시를 조시(組詩)로 보아 <멈추어 선 구름[停雲]> 4수, <사계절의 운행[時運]> 4수, <무궁화[榮木]> 4수, <장사공께 드림[贈長沙公]> 4수, <정시상의 증시에 감사하며[酬丁柴桑]> 2수, <방참군의 증시에 답하여[答龐參軍]> 6수, <농사를 권하며[勸農]> 6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며[命子]> 10수, <돌아온 새[歸鳥]> 4수로 친다면 4언시가 도합 44수가 되어 전체 수량이 161수가 되고, 술을 직접 언급한 시편도 55수로 늘어난다.

주제어: 도연명, 도연명시, 술, 음주, 음주의 의미
陶淵明, 陶淵明詩, 飲酒, 酒詩, 喝酒的意義

여) “도연명의 시는 각 편마다 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³⁾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또한 그가 현실 생활 속에서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자신이 「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서(序)」에서 팽택령(彭澤令)에 나가게 된 이유를 말하여 “당시 시국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 마음 속으로 멀리 나가 벼슬하는 것을 꺼렸으나 팽택현은 집에서 불과 백 리 떨어져 있고, 봉급으로 받는 밭의 수확물로 족히 술을 담글 수 있겠기에 가겠다고 했다.”⁴⁾라고 하였고,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서 “홍겹게 술을 마시고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즐기니, 옛날 태평성대의 임금 무회씨(無懷氏)의 백성인가, 갈천씨(葛天氏)의 백성인가?”⁵⁾라고 했으며, 소통(蕭統)은 「도연명전(陶淵明傳)」에서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지만 살림살이가 가난해 늘 마시지는 못했다. 친구들이 그의 형편을 알아 간혹 술상을 차려놓고 부르면 가서 언제나 홍겹게 마시며 반드시 취하고자 했다. 취해서 물러갈 때에는 언제나 떠나고 머무름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⁶⁾ “아전들더러 공전(公田)에 모두 찰수수를 심게 하고 ‘내가 늘 술에 취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했다. 처자가 굳이 메벼 심기를 청하자 할 수 없이 250무(畝)에 찰수수를 심게 하고 50무에 메벼를 심게 했다.”⁷⁾ “도연명은 음률을 모르면서도 무현금(無絃琴)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 술이 얼근해질 때마다 그것을 타며 자신의 마음을 기탁했다. 귀

2) 이 외에도 술과 관련된 시어로 ‘준(樽)’, ‘호(壺)’, ‘감(酣)’, ‘작(爵)’, ‘뢰(罍)’, ‘장(漿)’ 등이 사용되었다.

3) “有疑陶淵明之詩，篇篇有酒。”(소통(蕭統), 『도연명집(陶淵明集)·서(序)』).

4) “于時風波未靜，心憚遠役，彭澤去家百里，公田之利，足以爲酒，故便求之。”(「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서(序)」).

5) “酣觴賦詩，以樂其志。無懷氏之民歟，葛天氏之民歟。”

6) “性嗜酒，而家貧不能恒得。親舊知其如此，或置酒招之。造飲輒盡，期在必醉。既醉而退，曾不慙情去留。”

7) “公田悉令吏種秫，曰：‘吾常得醉於酒足矣。’妻子固請種秬，乃使二頃五十畝種秫，五十畝種粳。”

천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술상을 마련해 함께 마셨는데, 그가 먼저 취하게 되면 손에게 ‘취기가 돌아 자고 싶으니 이제 일어나도록 하시지요’라고 말했다.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태수가 일찍이 인사차 술을 들고 그를 찾아갔는데, 그 술이 익은 것을 보고 머리에 쓰고 있던 갈포 두건을 벗어서 술을 거르고는 다시 그것을 머리에 썼다.”⁸⁾라고 하였다.

술이 중국문학 작품에 등장한 역사도 매우 오래 되어 『시경(詩經)』 시에 이미 술과 음주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⁹⁾ 여기서 이미 술이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시에서 인생무상을 한탄하며 근심 해소의 목적으로 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동한(東漢) 말(末)에 이르러서이고,¹¹⁾ 위(魏)·진(晉) 교체기에 활약한 죽림칠현(竹林七賢)은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인 변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마셨다. 유영(劉伶)은 <주덕송(酒德頌)>을 지어 술의 미덕을 찬미했고, 완적(阮籍) 등이 술을 마신 것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들에게 닥쳐올지 모를 재앙을 피하는 한편 권력층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표시였다.¹²⁾

8) “淵明不解音律，而蓄無絃琴一張，每酒適，輒撫弄以寄其意。貴賤造之者，有酒輒設。淵明若先醉，便語客：‘我醉欲眠，卿可去。’其真率如此。郡將常候之，值其釀熟，取頭上葛巾漉酒，漉畢，還復著之。”

9) 『시경』에서 음주나 술에 대해 언급하거나 취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시는 모두 51수로서 전체 305수의 약 17%를 차지한다(임도현, 『이백 시에 나타난 술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12).

10) “에라, 쇠뿔 잔에 술이나 부어, 기나긴 시름 잊어볼까.”(我姑酌彼金罍，維以不永懷) <국풍(國風)·주남(周南)·권이(卷耳)>

11) 악부(樂府) <서문행(西門行)>, 조조(曹操)의 <단가행(短歌行)>, 조비(曹丕)의 <대장상호행(大牆上蒿行)>, 조식(曹植)의 <야전황작행(野田黃雀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2) 섭몽득(葉夢得), 『석림시화(石林詩話)』, “쯔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심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하게 취하기도 한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는 그 본뜻이 진정으로

진(晉)·송(宋) 교체기에 활약한 도연명에 이르면 술의 의미가 대폭 확대되고 심화되어 술이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도연명의 시에서 술을 언급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에게 있어서 술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1) 도연명은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흡족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으며,¹³⁾ 팽택령을 사직하고 은거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살게 되어서는 시에서 술이 우선 고된 노동 후의 허기와 피로를 달래주고 심신을 위로해주는 음식물로 등장한다.

<和劉柴桑>(시상 현령을 지낸 유정지의 시에 화답하여)

谷風轉淒薄, 봄바람이 아직 싸늘하게 와 닿지만
 春醪解飢飢. 봄 막걸리로 허기와 피로를 달랜다.
 弱女雖非男, 어린 딸은 비록 사내아이가 아니지만¹⁴⁾

술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사람들 각자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으며, 오직 술 취하는 것에 의지해서 세상의 일을 다소 멀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晉人多言飲酒有至於沉醉者, 此未必意真在於酒. 蓋時方艱難, 人各懼禍, 惟托於醉, 可以粗遠世故.)

13) 그는 <만가시(挽歌詩)>(2)에서 “살아생전엔 마실 술 없었는데, 오늘 아침엔 비었던 술잔이 넘친다. 막걸리에 거품이 뽀글뽀글 일지만, 언제 다시 이 술을 맛볼 수 있을까?”(在昔無酒飲, 今旦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라고 하여 가난한 삶 속에서 술이 늘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14) 이 구절은 ‘弱女’를 薄酒(아무렇게나 빚어 맛이 없는 술)로, ‘男’을 진하고 맛있는 술로 보고 “박주가 비록 맛있는 술은 아니지만”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慰情良勝無. 마음 달래주니 진정 없는 것보다 낫다.

<庚戌歲九月中於西田穫早稻>(경술년 9월 서쪽 밭에서 올벼를 수확하고)

四體誠乃疲, 온몸이 참으로 그렇게 고달프지만
庶無異患干. 의외의 재난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盥濯息簷下, 손발을 씻고 처마 밑에서 쉬며
斗酒散襟顏. 한 잔 술로 기분 풀고 얼굴을 편다.

<癸卯歲始春懷古田舍>(계묘년新春 시골집에서의 회고)(其2)

日入相與歸,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와
壺漿勞近隣. 술병 들고 가까운 이웃을 위로한다.
長吟掩柴門, 길게 읊조리며 사립문을 닫으니
聊爲隴畝民. 그럭저럭 농부가 된 것 같구나.

세 번째 시에서 술은 시인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웃과 자신의 허기와 피로를 달래주는 음식물이면서 이웃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 도연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술을 전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구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讀山海經>(산해경을 읽으며)(其1)

既耕亦已種, 밭을 갈고 씨도 뿌려놓은 뒤라서
時還讀我書. 틈을 내서 돌아와 책을 읽는다.
窮巷隔深轍, 궁벽한 골목이라 큰 수레 길과 떨어져 있어
頗迴故人車. 번번이 친구의 수레를 돌아가게 만든다.
歡言酌春酒, 즐겁게 봄 술을 따라 마시고
摘我園中蔬. 텃밭에서 채소를 따다.

<時運>(사계절의 운행)(其2)

洋洋平津,	넓고 넓은 물가 나루터에서
乃漱乃濯.	입을 가시고 발을 씻다가
邈邈遐景,	아득히 펼쳐진 먼 풍경을
載欣載矚.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人亦有言,	다른 사람들도 말하나니
稱心易足.	마음 맞으면 쉽게 만족한다.
揮茲一觴,	이 한 잔 술을 들이켜니
陶然自樂.	거나해져 절로 즐거워진다.

<雜詩>(잡시)(其1)

落地爲兄弟,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형제
何必骨肉親.	어찌 반드시 피붙이만 가까우리.
得歡當作樂,	기쁜 일 생기면 즐겨야 하니
斗酒聚比鄰.	한 말 술로 이웃을 불러 모은다.
盛年不重來,	한창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一日難再晨.	새벽도 하루에 두 번 오지 않는다.

세 번째 시에서 술은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구가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하려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다음 구절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무반복성을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술이 인생을 긍정하고 애착을 갖게끔 해주는 기제임을 암시하였다.

(3) 도연명에게 술은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 변민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停雲>(멈추어선 구름)(其1)

靄靄停雲,	어둑하게 멈추어 선 구름
濛濛時雨.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八表同昏,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지고

平路伊阻.	평탄한 길이 꼭 막혀버렸다.
靜寄東軒,	조용히 동쪽 창가에 기대어
春醪獨撫.	봄 막걸리를 혼자서 마신다.
良朋悠邈,	좋은 벗은 아득히 멀리 있어
搔首延佇.	우두커니 서서 머리 긁적이다.

이 시에서 구름과 비는 당시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시대상황을 비유한 것일 수 있고, 멀리 있는 벗은 검제천하의 유가적 이상을 함께 하는 동지를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은 잠시나마 암담한 현실과 그로 인한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멀리 있는 벗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榮木>(무궁화)(其3)

嗟予小子,	아아, 이 못난 사람은
稟茲固陋.	고루한 성품을 타고났네.
徂年既流,	지난 세월 이미 흘러갔으나
業不增舊.	학업은 옛날 그대로이다.
志彼不舍,	쉬지 않고 공부에 뜻을 두어야 하는데
安此日富.	날마다 술에 취하는 걸 편안히 여긴다.
我之懷矣,	내가 이것을 생각하노라면
怛焉內疚.	슬프고도 내심 괴롭기 짝이 없다.

여기서 술은 일견 검제천하(兼濟天下)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가(儒家)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두 구절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해보면 자신의 유가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과 그로 인한 번민에서 빠져나가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責子>(자식들을 꾸짖으며)

通子垂九齡, 통동은 아홉 살이 다 되었는데도
 但覓梨與栗, 배와 밤밖에는 찾을 줄 모른다.
 天運苟如此, 하늘의 운명이 진정 이와 같다면
 且進杯中物, 그저 술이나 들이킬 수밖에.

이 작품에서 시인은 인생이 결국 운명(타고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유가적 가치관’에 대한 갈등과 그 갈등을 체념을 통해 극복해 나간 과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솔로써 그러한 개인적 변민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止酒>(술을 끊으라)

居止次城邑, 성읍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逍遙自閒止, 이리저리 거니니 절로 한가해진다.
 坐止高蔭下, 앉는 것은 큰 나무 밑에서 그치고
 步止華門裏, 걷는 것은 사립문 안에서 그친다.
 好味止園葵, 좋은 맛은 텃밭의 푸성귀에 그치고
 大權止稚子, 대단한 기쁨은 어린아이들에 그친다.
 平生不止酒, 평생 여태껏 술은 끊지 않았으니
 止酒情無喜, 술을 그치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
 暮止不安寢, 술을 그치면 저녁에 편히 잘 수 없고
 晨止不能起, 술을 그치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日月欲止之, 하루하루 끊어보려고 하긴 했지만
 營衛止不理, 혈액의 순환 멈추고 작동하지 않으리.
 徒知止不樂, 끊는 게 즐겁지 않다는 걸 알 뿐이고
 未知止利己, 끊는 게 몸에 이롭다는 건 믿지 않았다.
 始覺止爲善, 비로소 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
 今朝眞止矣, 오늘 아침에는 정말로 끊어보리라.
 從此一止去, 지금부터 일단 술을 끊고서

將止扶桑浹. 내일 아침까지는 끊어보리라.
 淸顏止宿容, 맑은 얼굴이 되어 어제 모습 그친다면
 奚止千萬祀. 어찌 천만년만 끊겠는가?

이 시는 도연명이 “술을 끊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해명한 작품인데, 여기서 술은 ① 마음에 기쁨을 주고, ② 밤잠을 편히 자게 해주고, ③ 아침에 일어나 활동하게 도와주고, ④ 혈액을 순환시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어서 술을 끊는 것이 몸에 이롭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에서 “맑은 얼굴이 되어 어제 모습 그친다면, 어찌 천만년만 끊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결국 “술이 암담한 현실로 인한 번민에서 벗어나는 수단인 만큼, 그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단 있다면 술은 이미 그 효용을 다했으니 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읽힌다.¹⁵⁾

(4)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은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 번민에서 벗어나는 수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의 근심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도 등장한다.

<形影身>(몸과 그림자와 정신)(形贈影)(몸이 그림자에게 주는 말)
 我無騰化術, 내게 신선 되어 하늘에 오를 방법 없으니
 必爾不復疑.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치 않는다.
 願君取吾言, 원컨대 그대는 나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得酒莫苟辭. 술이 생기거든 멋대로 사양하지 마시게.

<形影身>(影答形)(그림자가 몸에 대답하는 말)
 立善有遺愛, 선을 행해야 미명을 후세에 남길 수 있으니

15) 시인의 <음주(飲酒)>가 20수로 되어 있듯이 <지주(止酒)>에는 ‘지(止)자(字)가 20번 사용되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시인의 의도된 안배로서, 그가 술을 마시는 까닭이 바로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인 번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인데, 현실은 암담함을 벗어날 가망이 없으므로 자신도 술을 끊을 가망이 없다는 식의 보충을 한 것으로 보인다.

胡爲不自竭. 어찌 스스로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酒云能消憂, 술로 근심을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方此詎不劣. 이에 비하면 어찌 저열하지 않겠는가?

<形影身>(神釋)(정신의 해명)

老少同一死, 장수하건 요절하건 다 죽게 마련이고
 賢愚無復數.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 부활의 운수는 없다.
 日醉或能忘, 날마다 취하면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將非促齡具. 어찌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己酉歲九月九日>(기유년 9월 9일)

從古皆有沒, 예부터 누구나 죽기 마련이니
 念之中心焦.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속이 탄다.
 何以稱我情, 무엇으로 내 마음을 위로할까?
 濁酒且自陶. 잠시 홀로 탁주 한 사발을 즐긴다.
 千載非所知, 천년 뒤는 내가 알 바 아니니
 聊以永今朝. 그저 오늘이나 길이 즐길 일이다.

이 4수의 시에서 술은 죽음에 대한 근심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기제로 읽힌다.¹⁶⁾

<飲酒>(음주)(其1)

寒暑有代謝, 추위와 더위는 오가며 바뀌거니와
 人道每如茲. 인생의 이치도 항상 이와 같은 것.
 達人解其會, 통달한 사람은 그 이치를 깨달아
 逝將不復疑.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忽與一樽酒, 문득 한 단지 술로

16) 양희석, 『陶淵明 ‘形影身’ 小考』, 『中國文學』 제63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p. 29 참고

日夕歡相持. 저녁마다 즐겁게 마시거나 할뿐.

이 시에서도 술은 인생무상을 깨닫고 그것을 달래는 수단인 동시에 현실의 삶을 긍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색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5)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은 이웃과의 교제수단이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酬丁柴桑>(유시상의 증시에 감사하며)(其2)

放歡一遇, 만나면 마음껏 즐거워하고
 既醉還休. 취하면 돌아가 쉬었습니다.
 實欣心期, 마음 맞는 게 진실로 기뻐
 方從我遊. 나와 교유하시는 것이지요.

<答龐參軍>(방참군의 증시에 답하여)(其3)

伊余懷人, 내가 그리워하던 그 사람은
 欣德孜孜. 덕행 좋아해 부지런히 힘쓴다네.
 我有旨酒, 나에게 좋은 술이 있으면
 與汝樂之. 그대와 함께 술을 즐기네.
 乃陳好言,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乃著新詩. 새로운 시도 지었으니
 一日不見,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如何不思. 어찌 그림지 않으리오.

여기서 술은 마음 맞는 사람과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移居>(이주)(其2)

春秋多佳日, 봄과 가을에는 좋은 날이 많아
 登高賦新詩. 산에 올라 새 시를 지어 읊는다.

過門更相呼, 대문을 지나다 번갈아 불러내어
有酒斟酌之. 술이 있으면 서로에게 따라준다.

여기서 술은 이웃과의 교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

<飲酒>(음주)(其9)

清晨聞叩門, 이른 아침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倒裳往自開. 허겁지겁 옷 거꾸로 걸치고 나가 문을 연다.
問子爲誰與, “당신은 누구신지요?”하고 물었더니
田父有好懷.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늙은 농부였다.
壺漿遠見候, 술병 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인사 와서는
疑我與時乖. 내가 시세와 다르게 군다며 나무란다.

여기서도 술은 교제의 수단이면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

<詠荊軻>(형가를 노래하며)

素驥鳴廣陌, 하얀 준마는 큰길에서 울부짖고
慷慨送我行. 모두들 격앙되어 나를 전송하니
雄髮指危冠, 곤두선 머리칼에 관이 솟아오르고
猛氣衝長纓. 맹렬한 기세가 긴 갓끈을 찌른다.
飲饑易水上, 역수 가에서 한 잔 술로 전송할 때
四座列群英. 술한 재사들이 자리에 둘러앉았다.
漸離擊悲筑, 고점리는 축으로 슬픈 곡 연주하고
宋意唱高聲. 송의는 목청을 돋우어 노래했다.

여기서 술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결의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은 이웃이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로도 등장한다.

<時運>(사계절의 운행)(其3)

延目中流,	시냇물 가운데로 눈길 보내며
悠想清沂.	아득히 맑은 기수를 생각한다.
童冠齊業,	청소년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閒詠以歸.	유유히 노래 부르며 돌아왔다지.
我愛其靜,	나는 그런 한적한 생활을 좋아하여
寤寐交揮.	자나 깨나 빈번히 술을 마신다.
但恨殊世,	다만 한스럽게도 세상이 달라져
邈不可追.	아득한 그때를 쫓아갈 수 없구나.

<時運>(사계절의 운행)(其4)

清琴橫牀,	거문고는 침상에 가로 놓여있고
濁酒半壺.	탁주는 술병에 반쯤 남아있다.
黃唐莫逮,	황제와 요임금 시대에 미칠 수 없어
慨獨在余.	나에겐 슬픔만 가득할 뿐이다.

시인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인 황제와 요임금 시대에 미칠 수 없어 슬픔만 가득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런 슬픔을 달래주고 마음으로나마 그런 이상세계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거문고와 탁주가 있다고 하였다.

(6)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자신과 이상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술을 통해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여 물아상망(物我相忘)의 경지에 이르기 도 한다.

<連雨獨飲>(연일 내리는 비에 혼자 술 마시며)
 故老贈余酒, 가까운 노인이 내게 술을 보내주며
 乃言飲得仙. 마시면 신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
 試酌百情遠, 한 잔 마시니 온갖 감정 사라지고
 重觴忽忘天. 두 잔을 드니 문득 하늘도 잊는다.
 天豈去此哉, 하늘이 어찌 여기를 떠날까마는
 任眞無所先. 자연에 맡기니 이보다 앞서는 게 없다.

시인은 술을 마심으로써 세속의 삶에서 오는 온갖 감정에서 초월하여
 정신적 자유를 획득한다고 말한다. 다시 다음 시를 보자.

<飲酒>(음주)(其3)
 道喪向千載, 도가 상실된 지 천년이 되어 가는데
 人人惜其情.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만을 아낀다.
 有酒不肯飲, 술이 있어도 마시려 하지 않고
 但願世間名. 다만 세속의 명성만 돌아볼 뿐이다.

여기서 음주는 속세의 명성과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행위를 가
 리키며, 술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는 기제로 읽힌다.

<讀山海經>(산해경을 읽으며)(其2)
 玉臺凌霞秀, 옥산의 요대는 노을 위로 우뚝 솟았고
 王母怡妙顏. 서왕모는 묘령의 얼굴에 화색을 띤다.
 天地共俱生, 천지와 더불어 태어났으니
 不知幾何年. 몇 살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靈化無窮已, 신령스러운 변화 끝이 없고
 館宇非一山. 사는 집도 하나의 산만이 아니다.
 高酣發新謠, 즐겁게 술 마시며 새 노래 부르니

寧效俗中言. 어찌 세속의 말을 흉내 내겠는가?

여기서 시인이 술을 마신다고 한 것은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신선과 같은 정신적 자유를 획득한다는 말로 읽힌다.

<飲酒>(음주)(其14)

故人賞我趣, 친구들이 나의 풍류 좋아하여
 挈壺相與至. 술병을 들고 함께 찾아왔다.
 班荆坐松下, 풀 뜯어 자리 삼고 소나무 밑에 앉아
 數斟已復醉. 몇 잔 기울이니 어느새 취해버렸다.
 父老雜亂言, 마을 어른들 뒤섞여 앉아 이야기 나누니
 觴酌失行次. 술잔도 순서를 잃고 돌아간다.
 不覺知有我,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었는데
 安知物爲貴. 외물이 귀함을 어찌 알겠는가?
 悠悠迷所留, 느긋이 마음 머무는 바에 빠졌으니
 酒中有深味. 술 속에 깊은 맛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술은 우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교제수단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잔도 순서를 잃고 돌아간다”고 한 것은 예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로 격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고, 나아가 “술 속에 깊은 맛이 있다”고 한 것은 시인이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여 ‘물아상망(物我相忘)’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하나 됨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7)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知己)요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飲酒>(음주)(其7)

秋菊有佳色, 가을 국화 자태가 아름다워

裊露掇其英. 이슬에 젖은 꽃을 만다.
 汎此忘憂物. 근심 잊게 하는 이 술에 띄워 마시니
 遠我遺世情. 나를 세속의 정에서 멀리 벗어나게 한다.
 一觴雖獨進. 한 잔 술을 비록 혼자 마시지만
 杯盡壺自傾. 술잔 비면 술병이 절로 기울다.

여기서 술은 근심을 잊게 해주는 음료인 동시에 시인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나아가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知己)이기도 하다.¹⁷⁾

<讀山海經>(산해경을 읽으며)(其5)
 我欲因此鳥, 나는 이 새에게 부탁하여
 具向王母言. 서왕모에게 소원을 말하고 싶으니
 在世無所須, 세상에 살며 달리 바라는 것은 없고
 惟酒與長年. 오직 술과 장수뿐입니다.

시인이 세상에 살며 원하는 것이 오직 술과 장수뿐이라고 말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술만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和郭主簿>(곽주부에 화답하여)(其1)
 營己良有極,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제한되어 있으니
 過足非所欽. 충족의 한도 넘는 것은 바람 바 아니다.
 春秫作美酒, 차조를 찼어서 맛있는 술 담그고
 酒熟吾自斟. 술 익으면 혼자서 잔 기울이리라.

여기서 시인은 술이 검소한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가운데 삶의 보람을

17) 사실 술잔이 비었을 때 술을 따르는 이는 시인 자신이지만, 시인은 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 “술잔이 비면 술병이 절로 기울다”고 재치 있게 말하고 있다(김시내, 『도연명과 마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91).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라고 말한 것으로 읽힌다.

(8) 도연명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겠다는 말은 고궁절(固窮節)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雜詩>(잡시)(其8)

御冬足大布,	겨울 추위 막는 데는 거친 베면 족하고
麤絺以應陽.	거친 갈포로 피약별 가리면 그만인데
正爾不能得,	그만한 것조차 얻을 수 없으니
哀哉亦可傷.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프다.
人皆盡獲宜,	남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는데
拙生失其方.	못난 나는 생계를 꾸릴 줄 모른다.
理也可奈何,	하늘의 이치를 어쩔 수 없으니
且爲陶一觴.	에라, 술이나 한 잔 마시려다.

마지막 구에서 시인이 “술이나 한 잔 마시려다”고 말한 것은 일견 곤궁한 처지를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고궁절(固窮節)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9) 도연명에게 술을 마신다는 말은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털어낸다는 것을 상징하며, 그 울분을 털어내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飲酒>(음주)(其13)

有客常同止,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살았는데
取舍邈異境.	사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一士常獨醉,	한 사람은 늘 홀로 취해 있고
一夫終年醒.	한 사람은 내내 깨어 있었답니다.
醒醉還相笑,	두 사람은 서로를 비웃기만 할뿐

發言各不領.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規規一何愚, 고지식하니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
 兀傲差若穎. 도도한 쪽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寄言酣中客, 흠뻑 취한 사람에게 말을 전하니
 日沒燭當秉. 해 지면 촛불 밝히고 즐기시구려.

여기서 시인이 술 취한 사람을 두둔한 것은 <어부사(漁父辭)>에서 굴원(屈原)이 어부에게 “사람들 모두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다.”¹⁸⁾ 라고 말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을 구할 재능과 포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털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飲酒>(음주)(其20)

如何絕世下,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후세에 와서는
 六籍無一親. 육경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도 없는가.
 終日馳車走, 하루 종일 수레를 몰아 달리지만
 不見所問津. 나루터 묻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若復不快飲, 만약에 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空負頭上市. 머리 위의 두건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但恨多謬誤, 단지 잘못된 말 많을까 유감스럽지만
 君當恕醉人. 여러분은 이 술 취한 사람을 용서하시라.

시인이 마지막 구에서 “여러분은 이 술 취한 사람을 용서하시라”라고 말한 것은 <음주(飲酒)>시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¹⁹⁾ 술을 마시는 행위는

18) “衆人皆醉我獨醒.”

19) “내가 한가하게 살다보니 즐거움이 적고, 게다가 요사이 밤이 이미 길어졌다. 우연히 좋은 술이 생기면 저녁마다 마시지 않을 때가 없다. 내 그림자를 마주하고서 홀로 술잔을 비우다 보면 갑자기 거듭 취하게 된다. 취하고 나면 그때마다 몇 구절을 적어서 스스로 즐기다 보니 시를 적은 종이가 마침내 많아졌지만 글에 차례가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털어내기 위해 후세에 남길 글을 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게 쓴 글이 설혹 후대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검손의 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飲酒>(음주)(其19)

遂盡介然分, 마침내 나의 곧은 본성을 지키고자
拂衣歸田里. 옷을 털고 전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冉冉星氣流, 그지없이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가서
亭亭復一紀. 어느덧 또 다시 열두 해가 지나갔다.
世路廓悠悠, 세상의 길은 넓고 한정 없이 멀어서
楊朱所以止. 양주는 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췄다.
雖無揮金事, 비록 돈을 뿌릴 일이 없기는 하지만
濁酒聊可恃. 탁주만큼은 그런대로 의지할 만하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자신이 비록 소광(疏廣)과 소수(疏受)처럼 “공을 이루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전원으로 돌아와 은거하는 생활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탁주만큼은 그런대로 의지할 만하다”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술은 <음주(飲酒)>(14)의 마지막 구 “술 속에 인생의 깊은 맛이 있다”²⁰⁾와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이 녹아든 것으로서 그가 술에 부여한 대부분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²¹⁾

없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친구에게 이것을 적으라고 해 함께 즐길 거리로 삼고자 한다.”(余閑居寡歡, 兼比夜已長. 偶有名酒, 無夕不飲. 顧影獨盡, 忽焉復醉. 既醉之後, 輒題數句自娛. 紙墨遂多, 辭無詮次. 聊命故人書之, 以為歡笑爾.)「서(序)」.

20) “酒中有深味.”

21)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 변민에서 벗어나는 수단, 고궁절(固窮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의 벗이자 인생의 동반자, 물아상망(物我相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해 주는 통로, 가슴속의 울분을 털어내는 방편으로서의 글쓰기 등.

3.

앞에서 도연명이 ‘술’ 또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9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술을 이렇게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사용한 것은 중국문학사상 도연명이 처음이며, 그런 까닭에 소통(蕭統)이 <도연명집서(陶淵明集序)>에서 “어떤 이들은 도연명의 시에 각 편마다 술이 언급되어 있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술에 기탁하여 자신의 자취로 삼은 것이다.”²²⁾라고 말했을 것이다.

후대의 중국 시에 술이 등장할 때 그 함의가 다양하고 깊어진 것은 도연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당대(唐代)에 활약한 이백(李白)도 ‘술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시에서 술을 언급했을 때 그 함의는 낭만의 추구라기보다는 암담한 현실과 사회에 대한 항의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 다음 시를 보자.

<將進酒>(술을 권하며) 李白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黃河之水天上來,	황하의 물이 천상에서 내려와
奔流到海不復回。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高堂明鏡悲白髮,	저택의 밝은 거울 앞에서 백발을 슬퍼하니
朝如青絲暮成雪。	아침에 검었던 머리가 저녁에는 눈빛이 된 것을.
人生得意須盡歡,	사람살이 마음이 흡족하면 한껏 즐겨야 하니
莫使金樽空對月。	금빛 술통을 달빛 아래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天生我材必有用,	하늘이 우리를 내신 것은 쓸모가 있어서이니
千金散盡還復來。	천금이 다 흩어져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지.

22) “有疑陶淵明詩篇篇有酒，吾觀其意不在酒，亦寄酒爲迹者也。”

烹羊宰牛且爲樂，
會須一飲三百杯。
岑夫子，丹丘生，
進酒君莫停。
與君歌一曲，
請君爲我傾耳聽。
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用醒。
古來聖賢皆寂寞，
惟有飲者留其名。
陳王昔時宴平樂，
斗酒十千恣歡諠。
主人何爲言少錢，
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千金裘。
呼兒將出換美酒，
與爾同銷萬古愁。

양 삶고 소를 잡아 우선 즐길 지어니
한 번 마셨다 하면 삼백 잔은 들이켜야 하리.
잠부자여, 단구생이여
술 한 잔 권하니 사양일 랑 마시게.
그대들 위해 노래 한 곡 부를 테니
나를 위해 귀 기울여 들어주시게.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도 귀할 것이 없으니
다만 길이 취하여 깨어나지나 말기를!
예부터 성현들은 모두가 적막했는데
술 마시던 사람만 그 이름을 남겼다지.
진왕은 그 옛날 평락관에서 잔치 벌였을 때
한 말에 만 냥 술로 마음껏 즐겼었다지.
주인이 어찌 돈이 모자란다고 하겠는가?
얼른 술 사와서 그대들과 한 잔 하리.
여기 오화마 있고 천금 갖옷도 있으니
아이 시켜 내다가 좋은 술과 바꿔와
우리 함께 만고의 슬픔을 녹여 보세나.

<장진주>는 일종의 권주가로, 제목의 원 뜻도 술을 권한다는 말이다. 이백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에서 쫓겨난 지 7년 째 되는 해(752)에 송산(嵩山)에 은거하고 있는 친구 원단구(元丹丘)를 잠훈(岑勛)과 함께 찾아가 오랜만에 셋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친한 벗과 만난 기쁨이야 대단히 컸겠지만 당시 세 사람의 처지가 모두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값싼 술조차 흡족하게 마실 형편이 못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백은 이와 같은 권주가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한편 암담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그로 인한 울분과 걱정을 암시적으로 표출하였다. 시인이 그와 같은 속마음을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은 “예부터 성현들은 모두가 적막했는데, 술 마시던 사람만 그 이름을 남겼다”는 구절이다. 공자(孔子)

같은 성현도 당시의 통치자들이 알아주지 않아 높은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적막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담한 현실과 개인적 변민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읽을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을 구할 재능과 포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털어낸다는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술 마시던 사람만 그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성현의 재능과 포부를 지닌 사람이 뜻을 펴지 못해 가슴 속에 울분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 저서나 문학작품을 남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된다는 말이다. 이백은 여기서 그 예로 정치적으로 좌절과 핍박의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 대신 훌륭한 문학작품을 남긴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왕자 조식(曹植)을 들었다. 그리고 나자 그는 감정이 고조되어 상상 속에서 스스로 조식이 된다. 현실 속에서 그는 곤궁한 나그네 신세로 친구를 찾아간 객(客)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왕자 시절의 조식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당연히 자신이 좌장으로서는 주인이 되고, 주인이라면 친구들에게 푸짐하게 술대접을 해야 한다. 마침 수중의 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왕자인 만큼 값비싼 외투와 말이 있으니 그것들을 술로 바꾸어오면 좋은 술을 흠뻑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결국 참담한 현실로 돌아오고 만다.

도연명으로부터 시작된 ‘술’의 다양하고 깊은 함의는 이백 뿐만 아니라 당대(唐代) 이후의 수많은 중국 시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가 중국의 고전시를 읽을 때 시의 맛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참고문헌

- (梁) 蕭統 編, 『陶淵明集』(欽定四庫全書本).
- (清) 陶澍 註釋, 『陶靖節集』.
- 王叔民 箋證(1975), 『陶淵明詩箋證稿』, 臺北: 藝文印書館.
- 田部井文雄·上田 武 著(2001), 『陶淵明集全釋』, 東京: 明治書院.
- 차주환 역(2001), 『한역 도연명전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치수 역주(2005), 『도연명 전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 팽철호 역해(2002), 『도연명 시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송용준 편역(2010), 『도연명 시선』, 서울: 지식음만드느지식.
- James Robert Hightower(1970), *The Poetry of T'AO CH'EN*, Oxford: Clarendon Press.
- 김창환 저(2009),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서울: 을유문화사.
- 袁行霈 撰(1997), 『陶淵明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李華 著(1992), 『陶淵明新論』, 北京: 北京師範大學院出版社.
- 大矢根文次郎 著(1969), 『陶淵明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 吉川幸次郎 著·李君奭 譯(1981), 『陶潛傳』, 臺北: 專心企業有限公司出版社.
- 임도현(2008), 『이백 시에 나타난 술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내(2010), 『도연명과 마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희석(2010), 「陶淵明‘形影神’小考」, 『中國文學』 제63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윤석우(2004), 「도연명의 사상과 음주시가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2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윤수영(2007), 「도연명의 음주시에 나타난 인생의 의미」, 『중어중문학』 50호, 한국중어중문학회.

원고 접수일: 2011년 4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6일

谈陶渊明诗中“酒”的含义

宋 龙 准

陶渊明是晋宋交替时期活跃在诗坛上的大诗人，在他的诗歌里频频出现有关酒的诗句。陶渊明在他的诗歌里把酒的象征意义加以扩展与深化，使酒不仅成为表现诗人思想感情的手段，而且象征了诗人的人生观和世界观。此后，酒在后人的诗歌中其意义不断丰富，不断加深。这应该归功于陶渊明。在中国文学史上，陶渊明第一次拓宽了酒的含义，升华了酒的价值，直接或间接地影响了包括李白在内的中国古代无数诗人。因而，才能够使我们今天吟诵中国古代诗歌的时候，感触更加丰富，渲染更加深刻。

酒在陶渊明的诗歌中所表现的意义具体分析如下：

- 一 酒是抚慰辛勤劳作后的饥饿与疲倦的饮料。
- 二 酒是讴歌田园生活的悠闲与快乐的手段。
- 三 酒是摆脱暗淡的现实与烦恼的手段。
- 四 酒是挣脱死亡给予的忧愁与恐怖的力量。
- 五 酒是沟通邻里，实现心连心的通路。
- 六 酒是获得精神自由，达到物我相忘境界的拐杖。
- 七 酒是最理解自己的知己，也是人生路上的同伴。

八 酒是保持“固穷节”意志的精神支柱。

九 酒是挥弃胸中忧愤的象征，表现了为解脱愤怒而写作的心情。

